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검토

오 선 영
(서울대학교)

Oh, Sun-Young. (2009). A review of ways of improving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2, 124-144.

This paper discusses diverse ways of improving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ree issues: the goals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the content of the program curriculu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ollege English education, diagnose its problems and weaknesses, and suggest various measures for enhancing it.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special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and its students as well as the students' own learning needs in designing any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is underscored. Given that the curriculum of English education program is developed by each college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the information that this paper provides is expected to help colleges upgrade their English education program.

Key Words: college English program, curriculum, needs analysis

I. 서론

21세기 세계화 시대,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을 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은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영어교육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다. 국제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는 대학에서도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진출하게 되는 사회 제 분야에서 영어 능력은 각 개인의 전공에 큰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의사소통 중심의 보다 실용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독해와 문법 중심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영어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듣기와 말하기를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영어시험 대비를 위한 실용 과목들을 개설하고 졸업 기준에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을 포함시키는 등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영어교육에 대한 학

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

영어교육 학계에서도 대학 차원에서의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이며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별 대학에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분석, 평가하여 그 사례를 보고하거나 혹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많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분석(needs analysis)을 실시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크게 (1)대학 영어교육의 목표, (2)교육과정의 내용, (3)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타진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달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 대학이 보다 효율적인 영어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

영어교육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은 대학 영어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흔히 교양교육과 실용영어 교육으로 양분하여 논의되곤 한다(권오량, 1995; 배두분, 1995).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반 교양의 함양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영미 문학 작품들의 강독 위주 방식으로 독해 능력에 주안점을 두는 교양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어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궁극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교수 방법론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이 지배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에서의 영어교육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게 되었다.¹⁾ 따라서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두고(김경자, 2004; 박부남 & 정혜옥, 2009; 박상옥, 1988; 박준언, 1997; Park, 1994 등), 읽기 뿐 아니라 듣기, 쓰기, 말하기의 네 영역으로 영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대학 교양영어 교과목의 목표를 “직장생활이나 학문생활을 위한 도구적 목적에 비중을 두며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는 통합적 목적을 동반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1) 대학의 영어교육이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30년 전에 제기되었으나(이한빈, 1980), 그 주장이 주목받고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하다”(p. 288)고 주장한다.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영어 학습의 주목표로 삼는 것은 교육의 제공자인 대학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임을 여러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다. 김길중 외 3인(1999)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대학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이유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선택했으며,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언어 기능을 말하기(40.5%)와 듣기(38.8%)로 인식하는 등 음성언어 능력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다. 국내 많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설문 조사를 실시한 조정순(2002)이나 정동수와 김해동(2001)의 연구에서도 역시 학생들은 교양영어 교육의 초점을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에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듣기와 말하기를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인다.²⁾

이처럼 교양보다는 실용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은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로 정립된 듯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의사소통 접근법을 수용하는데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으며(Kong, 1996), “실용”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수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언어기능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은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구분될 때 그 구체적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음성언어 위주의 목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용” 교육과 동일시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 영어의 네 기능 모두에 초점을 두는 통합적인 목표(송미경 & 박용예, 2004; 윤정림 & 장용선, 2009)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영어의 네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어느 한 가지 기능마저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조동완, 2006). 또한 대학 영어교육에 있어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추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교양영어”에 여전히 가치를 두는 학자들도 있다(김명환, 2008; 엄용희, 2002; 정상준 외 2인, 2005; 정익순, 2007). 김명환(2008)은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가 실용영어나 실무영어가 되어서는 안되며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는 ‘학술영어’(Academic English)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76).³⁾ 그는 학술영어의 목표를 “깊이 있는 글을 읽고

2) 한편 김현욱(2007)은 학생들과 한국인 교수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양영어의 네 기능 중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중요시하여 원하던 교수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 반면, 한국인 교수들은 읽기, 어휘, 구두 언어, 그리고 통합의 순으로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최근 한 지방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한태용, 2009)에서도 학생들은 대학영어 수업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기(73%)를 선택한 데 반해, 실제 수업을 담당한 한국인 교수가 수업시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문법(46%)과 읽기(26%)로 나타나 학생들의 요구가 실제 교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해하며 그것을 정리하여 말이나 글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라고 보고 있다. 정의순(2007) 역시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인문학적 사유지평 확장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영어교육”(p. 139)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별로 처한 상황 및 학생의 수준과 필요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학별로 영어교육의 목표가 차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김현진, 2005; 박준언, 2004). 예를 들어 김현진(2005)은 지방대학의 교양영어 교육은 수도권 대학보다 영어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실용적인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만 경쟁력이 확보되며, 학생들의 수준과 진도에 따라 구별된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태용(2009)이 한 지방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45%가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졸업 후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29%는 토익 등 취업과 연관된 영어시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 개선 방향에 대해 연구한 정상준 외 2인(2005)은 서울대학교의 영어교육은 단순히 기술적인 언어 훈련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인문교육과 교양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목표를 국제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면서 교양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아마도 대학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졸업생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 진출해서 영어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학습자의 영어학습 필요분석을 실시하여 영어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 학습자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하게 될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각 대학이 영어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것인지는 이에 기반을 두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초·중등 차원에서의 영어교육과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이 그

3) 하지만 이 목표의 현실성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김명환(2008)은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수준과 사회진출 현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4) 그러나 이 연구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 13명의 학생들만 인터뷰하였음). Pyo(2006)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교육목표 설정이나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학생들과 교수자들 간에는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를 가지기 쉽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김현욱, 2007)에서도 두 집단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라는 궁극적인 대학의 영어 수업 목적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한국인 교수들은 전공영어와 문화 및 교양 영어 등 다양한 범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대화능력 신장과 취업 준비의 실용적인 목표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는 학생들보다 교수자들의 요구와 필요가 더 우선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잘 수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목표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지만 영어교육과 관련된 국가 전체의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Ⅲ. 교육과정 내용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특히 다양화와 체계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현행 대학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 관련 교과목의 수와 종류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논의하게 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어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영어 학습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과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순(2002) 역시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 설문 연구는 영어 관련 교과목의 확대 개설 및 수강 선택의 폭 확대에 대해서 교수와 학생들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해 학습자, 교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세 집단이 공통으로 희망하는 영어 교과목의 목표와 교육의 방법 및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양영어 교과목의 목표는 취업과 학문을 위한 도구적인 것과 교양 문화생활을 위한 통합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 내에 여러 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되면,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므로 학습 동기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에서 제공하는 과목의 선정을 기존의 방식대로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학생들(및 졸업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학 영어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상준 외 4인(2006)은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당시 프로그램의 큰 틀인 기초영어, 대학영어, 고급영어 강좌들을 좀 더 세분화, 다양화, 체계화한 트랙 제도(track system)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급 수준의 학생들은 동일한 토픽 성적대(551-750)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강좌들을 계속해서 수강함으로써 고급영어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중급영어 강좌들은 크게 특정 언어영역 향상을 위한 과목들(English for Specific Skills)과 특정 전공을 위한 과목들(English for Specific Majors)로 양분된다. 전자는 집중회화, 집중작문, 집중문법 등의 과목들로, 대학영어를 수강한 뒤에 좀 더 집중적으로 특정 언어영역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과목들이다. 후자는 크게 인문/사회, 예술/체육, 자연/공학 분야로 나뉘어, 향후 전공 영어 강의를 수강하고 영어로 학술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 영역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통합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2008년 2학기부터 중급영어 강좌에 해당하는 대학영어2 과목을 신설하여 토픽 점수가 551점에서 700점 사이인 경우 대학영어1(기존의 대학영어)을, 701점에서 800점 사이인 경우 대학영어2를 수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영어2 과목은 트랙제도에서 제안한 대로 특정 언어영역 향상을 위해 글쓰기와 말하기 강좌로 구분되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특정 전공을 위한 과목 개설은 아직까지 대학영어 프로그램 내에 체계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내용중심 언어교육 및 ESP 교육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요청된다.

한편 개설 교과목 다양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 관련 교과목 확대 개설에 필요한 교육 공간 확보와 강사 수급상의 문제 등은 대학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할 것인지, 선택과목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선택과목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강하게 할 경우 수강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점을 문자 학점(letter grade) 대신 합격/불합격(pass/fail)으로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내용중심 언어교육(Content-based Language Instruction) 및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교육의 활성화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외국어교육 방법론으로 각광받게 된 내용중심 언어교육(content-based language instruction)은 언어학습이 유의적 맥락(meaningful context) 내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는 학습 방법으로서, 특정 교과 내용의 학습과 언어 학습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Brinton, Snow, & Wesche, 1989; Snow, 1998). 따라서 언어학습에만 초점을 두던 기존의 외국어교육 방식과는 크게 차별된다.

영어교육을 이처럼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면 학습자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나 수업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학습의 목표는 영어를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참여한 강의나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김규현 외 3인, 1998). 내용중심 언어교육을 대학 영어교육 상황에 적용하게 되면, 영어 학습은 곧 학습자의 전공학문 분야와 같이 학습자가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교과목 수업에 토대를 두게 된다(Widdowson, 1983). 내용중심 언어교육은 여러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수 목적을 위한 영어학습 프로그램(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여러 학자들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대학 영어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내용중심 언어교육의 도입을 제안해 왔다(김규현 외 3인, 1998; 박준언, 2000, 2003; 서초순, 1990; Park, 1994). 현재 각 대학들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학습 내용이 기본적인 대인상호간 의사소통 기술(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표현에 머물고 있어,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전공학문 영역을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박준언, 2004; 윤정림 & 장용선, 2009). 그러나 사실 대학 영어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영어를 활용한 전공교육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서 보다 차원 높은 학문적 영어사용 능력(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학문 영역과 연계되면서 질적으로도 심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전공과목들을 영어로 수강하도록 하는 특수목적 영어(ESP) 교육 내지 학문목적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교육의 적극적 도입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내용중심의 교육과정 도입과 계열별/전공별로 차별화된 영어수업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정상준 외 2인, 2005; 정상준 외 4인, 2006). 이러한 ESP/EAP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정림과 장용선(2009)이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91명 중 56%의 학습자들이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서 각자의 전공학문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를 원했다.

내용중심의 영어교육 수업을 시행할 경우 교수는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영어사용능력 역시 뛰어나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전공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적 행동에 대해서도 피드백과 코멘트를 제공해줌으로써 자신의 취약점에 대해 지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Kang, 2007). 이

러한 문제는 자격 있는 원어민 교수를 확보하거나 또는 내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공동수업 등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김규현 외 3인, 1998). 박준언(2003)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전공영역과 연계한 ESP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보고하면서, 영어 원어민 교수들을 활용한 대학 영어교육이 단순히 기본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학생들의 전공학문 내용과 연계된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전공과 영어 학습을 연결시키는 내용중심 영어교육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대학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외 3인(1998)은 궁극적으로 영어기능의 학습은 중등학교나 사설기관에서 담당하고, 대학은 전공내용과 관련하여 영어를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내용중심 언어교육이나 ESP 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 영어교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과 제안된 것이며, 그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들이 이미 이러한 전공맞춤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내용중심 영어교육 및 ESP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언(2004)에 의하면 그가 조사한 대학들의 절반 정도가 ESP/EAP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ESP/EAP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전공학문 영역이러기보다 실용영어 차원의 과목들(e.g., Business English, Academic writing, 무역영어, 경영영어, 공학영어, 의학영어, 법률영어)이라고 연구자는 지적한다. 대학에서의 ESP/EAP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용영어 교육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 각자의 전공학문 영역을 영어로 다루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학 교양영어 관련 교과목들이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듯이, ESP/EAP 과목들 역시 좀 더 세분화되고 과목 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교육과정 편성상의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논의할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개정이다. 무엇보다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영어 교과목의 학점수와 관련해서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 조정순(2002)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 두 집단 모두 필수 이수학점으로 10-12학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많은 대학에서(설문에 참여한 67개 대학 중 51%, 즉 34개교에서) 필수로 정해 놓은 교양영어 학점이 6학점(2과목)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대학마다 필수 학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당 수업 시간 수 및 필수 과목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한기 외 2인, 2005; 정상준 외 2인, 2005; 조동완, 2006; Kong, 1996).⁵⁾

의무이수 학점 확대와 관련하여 수강 연한 연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개 1년으로 그치는 교양영어 수업을 연장하여 고학년까지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서 다양한 영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윤정림 & 장용선, 2009; 조세경 외 2인, 1997; 조정순, 2002).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영어교육이 1,2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습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3,4학년 중심으로 영어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박준연, 1997; 방영주, 2004; 조세경 외 2인, 1997).

IV.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 면에 있어서는 수업 방식, 교재 및 교수법 개발과 함께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영어에 대한 노출 강화 등 교육 환경 전반에 걸친 대학 영어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1.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대학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수준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김동욱 외 3인, 1999; 김창호, 1995; 박준연, 2004; 정동수 & 김해동, 2001; 조세경 외 2인, 1997; 조정순, 2002).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비슷하도록 수준별 학급을 구성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상이한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그 학급 수준에 적절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및 교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학급 학생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문제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조정순(2002)의 연구에 따르면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교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67개 대학 가

5) 한편 여러 행정 및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의 물리적인 영어 노출 시간의 한계를 수업 시간의 양적인 확대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원어민 교수 면담과 온라인 학습 등의 교실 외 활동을 추천하는 연구자도 있다(송희심, 2008).

운데 20개 학교(약 30%)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수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연구 결과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 91%와 학생 77%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학생들의 75% 이상이 수준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숙 & 이지연, 2009; 방영주, 2004; 성기완 외 2인, 2004).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급 규모가 축소되어 소집단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상욱, 1988; 조세경 외 2인, 1997). 권오량(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설문대상 대학교(32개교)의 90%이상이 학급당 수강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특히 31-40명인 학교가 제일 많은 분포(13개교, 40.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급당 수강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현재 수정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영어교육에서 수준별 수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 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교육은 초·중등 영어교육과 대학 영어교육의 연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성기완 외 2인(2004)은 대학 교양영어 과목의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1년 4학기제 개념을 도입하여 보충반 및 심화반을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 기간 중 운영함으로써,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하위 학습자나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이 요청되는 상위 학습자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⁶⁾ 뿐만 아니라 4단계로 이루어진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비록 이 교육과정은 실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편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과 내용 역시 수준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동일한 교과목을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이지만, 만일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강사 수급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서 한 과목 내에서 수준별 과제활동 운영을 채택할 수도 있다(임희경, 2005). 예를 들어 동일한 강사가 가르치는 동일한 강좌를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웹 검색이나 전자사전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하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강사가 제시하는 과업형 과제를 달성하는 식으로 심화 학습활동을 시행함으로써

6)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시 및 정기 평가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70% 미만인 학생들은 보충반으로, 95% 이상인 학생들은 심화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준별 활동을 구성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평가 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공정한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는 조정순(2002)은 학급 편성 시 사용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위권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김영숙과 이지연(2009)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초급수준 학습자들에 비해 고급수준 학습자들의 수준별 교양영어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급수준 학습자들의 능력을 고려한 원어민 교수의 교수방법과 상대평가 방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그램 개발 시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분석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2. 교재 및 교수법 개발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재가 개발 혹은 선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준언(2004)에 따르면 그의 조사대상 중 70% 이상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대신 영미권 출판사들이 개발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의 ESL교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박준언은 교재 개발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참여시켜 각 대학의 상황에 알맞은 영어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 개발과 편성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조세경 외 2인, 1997).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재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단은 기존 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교재를 개발하고 같은 강좌를 담당하는 여러 교수들 간에 자료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송미정 & 박용예, 2004).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강의교재 개발에 관한 한 연구(정상준 외 8인, 2005)는 대학영어7) 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설문지 조사, 수강생 인터뷰, 체크리스트 분석 등의 작업을

7) 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학영어” 과목은 현재는 “대학영어1”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통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 모두 교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영어 수업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사용되는 교재는 읽기용 교재로서 교사가 말하기·쓰기 영역을 추가 자료를 찾거나 개발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재가 학생들의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 학습 능력, 자신감 정도, 개인적인 흥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보다 나은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20여권의 교재를 여러 평가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뒤, 네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기에 적절하며 학생들의 요구와 프로그램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교재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대학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설정한 영어교육 목표에 부합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최선의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교재 평가 및 개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많은 대학이 공유하고 있는 영어교육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수·학습 개발 지원과 함께 언어 영역별로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임희경, 2005). 대학에서의 영어 교수법 관련 연구는 학습자 필요분석이나 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김규현 외 3인(1998)은 실용영어 구사능력 증진을 위한 교수법을 연구했는데, 학습자에게 충분한 입력(input)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수법을 가장 바람직한 교수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업 중심의 교수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것과 읽기능력의 신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실용”영어의 개념을 학습자 자신에게 가장 실용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실용영어 교수법은 바로 학습자 자신들에게 가장 실용적으로 필요한 성격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교수법으로 이해하면서 특히 내용위주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ang(2007)은 학생들이 먼저 과제중심 교수방식(Task-Based Instruction) 수업을 통해 필요한 언어 기술을 익힌 후에 내용중심 교수방식(Content-Based Instruction)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방영주(2004)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어의 네 기능별로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말하기의 경우 그룹 활동을 통한 말하기 활동, 읽기 활동으로는 문장의 주된 내용 이해와 어휘 문법 분석하기 등을 꼽았으며, 어휘의 경우 어휘의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인 교수가 진행하는 대학의 영어수업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한태용, 2009)에 따르면, 총 254명의 학생 중 불과 24%만이 불만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불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한 학생도 거의 30%에 달하는 등 수

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이유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나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별 다를 바 없는 일방적 수업방식과 문법과 독해 위주의 수업방식이 가장 큰 빈도를 차지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영어 교수법이 개발되고 제안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 방식에는 아직도 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교과목이 새로 개설되게 되면 강좌 개발 시에 각 교과목의 성격에 맞는 교수법 및 교재의 선택 또는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이러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교사 연수 기회 등을 통해 교재의 성격과 바람직한 활용 방식 및 교수법의 이론과 실재를 숙지하게 함으로써 교재와 교수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환경 개선: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활용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의 구축을 들 수 있다(조세경 외 2인, 1997).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기술에 바탕을 둔 오디오와 비디오 중심의 어학실습실은 대학 영어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적인 외국어 교수법이 널리 확산되면서 기존의 어학실습실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음성, 그래픽, 동화상 등을 총체적으로 결합시킨 멀티미디어 어학센터로 변모되고 있다. 또한 많은 외국어 교육자들은 멀티미디어 보조 언어교수법이라는 명칭 하에 디지털 매체와 언어교육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이 새로운 교수법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각 대학들은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다중교육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영어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연(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대학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26/38, 74.3%). 정상준과 문도식(2006)은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어학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멀티미디어 어학실이 영어 학습에 미친 영향, 설비에 대한 만족도,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효과,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어학실 활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기존의 어학실습실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습 자료와 현대적인 기가재가 비치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이용하면서 각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언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학

습 동기가 높아짐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박준언(2004)의 연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역시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평가의 이유로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 통합적 영어교육의 효과, 대단위 수업의 효과적인 보조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부재, 운영상의 미숙(정상준 & 문도식, 2006), 관련 기자재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과다한 점(박준언, 2004)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 및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기반 언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담 강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개인별 언어학습을 위한 장소로 한정시키는 대신 워크샵이나 수업 등 다양한 언어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상준 & 문도식, 2006). 무엇보다도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키면서 동시에 영어 실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수강생들 각각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체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서, 임희정(2005)은 학습자 요구도를 중심으로 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양영어 교과목 개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과목 개발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대상 대학의 사이버 강의실 시스템과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고 학습자들의 자율학습 및 수업 외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박한기 외 2인(2005)도 멀티미디어에 큰 관심을 가진 학습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웹 기반 학습(Web-based Instruction)과 교실 수업을 결합시킨 통합수업방식을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대학 영어교육은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영어에 대한 노출 강화 방안

영어에 대한 충분한 노출은 영어능력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매우 제한된 수의 영어 과목을 생각할 때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에 대한 노출만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까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한 영어교육은 결국 교실 상황으로 한정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노출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대학들은 해외 자매학교와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이나 해외영어연수 프로그램 및 방학 중 집중영어학습 캠프 등 다양한 비정규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박준언, 2004). 박부남과 정혜옥(2009)은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의 정규 교양영어 체제 내에서 학생들을 영어 환경에 좀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집중영어 프로그램(Dynamic English)을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학기 16주(총 48시간)에 걸쳐 교양영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단과 대학별로 학생들이 3주 동안 언어생활관에서 기숙하면서 저녁에 3시간씩 과제 중심 집중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45시간을 증가시켜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 면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단기간의 집중학습보다는 장기적인 학습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특정 공간을 영어만 사용하는 지역(English-only zone)으로 지정해 놓고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설치의 취지는 학생들이 수업 외적인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이는 특히 많은 한국 대학생들이 말하기 능력이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Kate Wolfe-Quintero와 Graham Crookes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평가한 보고서(정상준 외 2인, 2005)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출력(output)’을 보다 강조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상준 외 4인(2006)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보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내에 영어사용 지역을 조성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제안에 따라 “SNU English Cafe”가 교내 한 건물의 한 층에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 외에도 앞서 논의했던 대로 학생들이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영어 관련 교과목을 더 많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수강하게 되고 또 전공교육과 영어교육의 통합을 꾀하는 내용중심 언어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 역시 영어 입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개선

마지막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대학 영어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개선책으로서 몇몇 연구들은 영어교육의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 발족을 제안하고 있다(박준언, 2004; 조세경 외 2인, 1997). 과거에는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영어영문학과와 같은 특정학과가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직도 그런 대학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의 학과가 관리하기에는 대학 전체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너무나 방대하며, 또 학과 교수들이 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교양영어 교과목을 분담해서 맡아야 하므로 부담이 너무 크고, 그 결과 수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대학 영어교육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며 질 높은 영어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영어교육을 운영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은 이와 함께 영어전담 교수요원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내 대학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원어민 강사가 고용되고 있으며 원어민 교수 채용 확대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조세경 외 2인, 1997), 이러한 원어민 강사의 선발 및 강의 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박준언, 2004). 사실 원어민 교수에 의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김명환, 2008; 김순복, 1997), 세계화 추세를 따라 원어민 교수의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권오량(2002)과 박준언(2004)이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38개와 37개의 조사대상 대학들은 모두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박준언(2004)에 의하면 영어 원어민 강사의 비중이 50% 이상인 대학이 설문 응답 대학교 33개 중 20개나 되어, 이들 원어민 강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학 영어교육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김규현 외 3인(1998)은 효과적인 원어민 교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이 서로 균형 있게 어우러진 통합적 접근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구체적인 수업 방안으로는 내국인 외국인 두 교수가 공동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언어 기능별로 동일한 과(lesson)에서 듣기와 읽기 같은 수용적 기능은 내국인 교수가, 말하기와 쓰기 같은 생산적 기능은 외국인 교수가 담당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내국인 교수는 언어 담당 교사로 언어적 측면을, 외국인 교수는 교과내용 담당교사로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주제 토론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 이러한 수업을 시도한 결과 매우 반응이 좋았으며, 한국인과 원어민 교수로부터 공동수업을 받은 집단이 어느 한쪽 교수로부터만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서 수업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한다. Lee(2000) 역시 이 같은 한국인과 원어민 교수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교수들은 주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박준언, 2004).

하나의 교과목을 여러 강사가 분담해서 가르칠 경우, 강사에 따라서 교수요목(syllabus)이나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과제와 시험 등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의 교과목인데도 그 목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혹은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면 강사들에게 각 교과목의 목표나 개선 방향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교과목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 정기적인 워크샵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강사 재교육, 그리고 변화되는 프로그램에 맞는 교수진 확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학 측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외부인을 위한 유료강좌 개설과 대학 발전 기금을 활용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박준언, 2004).

한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Park, 1994). 앞서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필요분석 연구들을 여럿 소개하였는데, 이처럼 학습자들의 요구와 관심을 파악하고 수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필요분석은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 정립뿐만 아니라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설계나 평가, 개선안 마련에 있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⁸⁾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필요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설정된 교육목표와 사용 중인 교재 및 교수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교육과정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조사하는 표준적인 필요분석 절차도 시행되어야 하며(정상준 외 2인, 2005), 교육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영어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대부

8) 한편 학습자와 교수 간의 큰 시각 차이를 드러낸 연구(김현옥, 2007)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분의 대학들은 현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는 학습자들의 필요와 관심 및 능력을 반영하여 실용적인 영어 교과목과 함께 전공 분야와 연계된 영어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용중심 영어교육 및 ESP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상의 개정으로는 1,2학년 중심의 편성에서 3,4학년 중심으로 편성하거나 의무 이수 학점을 확대하여 3,4학년까지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면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편성과 소규모 학급 운영, 각 교과목에 적합한 교재 및 교수법 개발, 멀티미디어 활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 영어사용지역 설치와 같은 영어에 대한 노출 강화 방안 등을 개선 방향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대학 영어교육을 위한 전담기구 및 전담교수제도 운영 등은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대학 당국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선책과 그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 영어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각 대학들이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교육은 각 대학의 특성이나 학생의 전공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학 영어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에는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영어교육을 제안하는 것들도 소수 있는데, 예를 들어 김동욱 외 3인(1999)과 서경희 외 3인(1999)은 산업대학을 위한 영어교육과정 모형 및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이희숙(1985)은 교육대학에 적합한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개선 방향과 발전 방안을 토대로 하되, 각 대학은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영어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는 각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병행될 때, 우리나라 대학의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량. (1995). 한국의 영어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변천. *영어교육*, 5(2), 107-131.
- 권오량. (2002). 국제 인력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대학의 영어교육과 기업 국제화 교육의 연계성. 국제교류진흥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 김경자. (2004). “글로벌 영어” 운영사례와 효과: 대학생을 위한 실용영어 프로그램. *외국어교육*, 11(3), 133-154.
- 김규현, 서경희, 차경애, & Slacova, J. (1998). 대학영어를 위한 실용영어 교수법 연구. *외국어교육*, 4(2), 71-96.
- 김길중, 신문수, 양현권, & 김진완. (1999).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분석: 사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 1-28.
- 김동욱, 정대수, 장순열, & 업철주. (1999). 산업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영어교육과정 모형개발. *영어교육*, 54(1), 253-296.
- 김명환. (2008). 한국 대학의 영어교육이 나아갈 길: ‘영어 문제’ 해법의 실마리. *안과 밖*, 25, 65-89.
- 김순복. (1997). 원어민의 3단계 High Tech & High Touch 교육안.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세종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영숙, & 이지연. (2009).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64(4), 337-368.
- 김창호. (1995). 지방대생 영어학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영어교육*, 50, 65-92.
- 김현욱. (2007).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 및 인식 비교. *외국어교육*, 14(3), 179-205.
- 김현진. (2005). 지방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가 설문 연구: 델파이 설문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12(4), 317-341.
- 박부남, & 정혜옥. (2009). 대학 교양영어 확대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 *영어영문학* 21, 22(1), 285-309.
- 박상욱. (1988).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 *영어교육*, 35, 83-105.
- 박준연. (1997).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결과 분석. *영어교육*, 52(1), 161-187.
- 박준연. (2000). 외국어 학습의 최근의 흐름과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에의 시사점. *외국어교육*, 7(1), 1-23.
- 박준연. (2003). 내용중심 대학교양영어교재 사용결과분석. *영어학*, 3(2), 233-254.
- 박준연. (2004). 한국 대학영어교육의 과제와 해결 노력. *영어학*, 4(4), 593-613.

- 박한기, 양승갑, & 오관영. (2005). 대학영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영어어문교육*, 11(3), 113-137.
- 방영주. (2004). 영어 능력 인증제, 능력별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 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고찰. *영어어문교육*, 9(2), 193-211.
- 배두분. (1995). 한국의 영어 교육학의 발달. *영어교육*, 5(2), 7-45.
- 서경희, 배문숙, 류재근, & 박정숙. (1999). 산업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법개발. *영어교육*, 54(1), 297-325.
- 서초순. (1990). 대학 영어교육을 위한 ESP 교과설계. *응용언어학*, 3, 85-108.
- 성기완, 표경현, & 이현명. (2004).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모형개발 연구. *외국어교육*, 11(2), 377-406.
- 송미경, & 박용예. (2004).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영어교육*, 52(2), 179-211.
- 송희삼. (2008). 교실 외 활동을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회화프로그램의 학습자 만족도 연구. *외국어교육*, 15(3), 141-168.
- 엄용희. (2002). 대학 영어교육의 방향: 교양영어냐 실용영어냐. *안과 밖*, 12, 33-41.
- 윤정림, & 장용선 (2009). 대학 실용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16(2), 15-39.
- 이한빈. (1980). 미래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2, 2-5.
- 이희숙. (1985).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29, 229-250.
- 임희정. (2005). 멀티미디어 활용 교양영어 교과목 개발연구: 학습자 요구도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7(3), 235-257.
- 정동수, & 김해동. (2001). 대학 교양영어 과목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5-292.
- 정상준, 박용예, 황윤희, 이혜원, Ryan, P., Sarjeant, N., Ruffell, L., 이시연, & 문도식. (2005). 대학영어 강의교재 개발. 서울대학교.
- 정상준, Wolfe-Quintero, K., & Crookes, G. (2005). 대학영어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서울대학교.
- 정상준, 민은경, 박용예, 송미경, & 신광현. (2006).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 정상준, & 문도식. (2006). 멀티미디어영어학습실 활용방안. 서울대학교.
- 정익순. (2007). 인문학적 사유지평의 확장을 위한 교양교육: 대학 교양영어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 135-148.
- 조동완. (2006). 쓰기 중심의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13(2), 69-91.
- 조세경, 문승철, & 이강혁. (1997). 대학 영어의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 방

- 향. *영어교육*, 52(4), 303-330.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 영어교육의 현황과 탐구. *영어교육*, 52(2), 365-394.
- 한태용. (2009). 한국인 교수가 진행하는 교양영어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5(2), 225-254.
- Brinton, D. M., Snow, M. A., & Wesche, M. B. (1989).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In J. W. Oller, Jr. (Ed.), *Methods that work*(pp. 136-142). Boston, Mass: Heinle & Heinle.
- Kang, A. (2007). CBI and TBI: Challenging and rewarding EFL college learner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3(2), 27-57.
- Kong, N. (1996).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Korean college English. *English Teaching*, 51(1), 97-118.
- Lee, H. (2000). Formative evaluation of college general English program. *English Teaching*, 55(1), 93-118.
- Park, N. (1994). Issues and trends in Korea's college-level English Language teaching. *Language Research*, 30, 297-321.
- Pyo, K. H. (2006). Different need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3), 1-22.
- Snow, A. S. (1998). Trends and issues in content-based instruc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243-26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 G. (1983). *Learning purpose and language 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오선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대학로 599

전 화: 02) 880-7675

이메일: sunoh@snu.ac.kr

Received on June 18, 2009

Reviewed on Oct 23,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13, 2009

Accepted on Dec 4, 2009